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努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린 同窓會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燾
印刷人 金映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7월 1일

第196號

向學의 熱氣에 도서관 不夜城



眞理탐구에 밤낮이줄 모르고는 母校生들
『사건』 ①母校중앙도서관에서 三伏을 잊
은채 면학에 열중하는 후배들. ②農大도서관
의 불빛이 꺼지지 않으면서 서울대는 未
來를 향해 달리고 있다.

冠岳春秋

炎天下의 冠岳캠퍼스는 한적하기만
하다. 校門을 들어서면 행사를 알리는
많은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질 뿐, 사람
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보온위
를 걸고라면 무성한 승용차가 눈에 띈
뿐이다.

그것은 모두가 學生들의 승용차이
다. 學生들의 승용차는 건물근처에 접
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외곽을 도
는 순환로에 주차하기 마련이다. 즐비
하게 늘어선 그 승용차 줄을 간혹 營業
用 座席버스가 승객을 내고 지나갈 뿐
이다.

긴 한바퀴를 마치고 母校는 이
제 放學에 들어간 것이다. 예전
에는 放學이 되면 의례 농촌봉사
활동 준비때문에 放學이 시작되
어도 學生들은 登校하여 부주의
물건이나 돈 했으나 금년에는 그
런 일도 없이 모두 캠퍼스를 떠
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건물이고 한바퀴
만 돌아서면 앞이 달라진다.
얼마전부터 實施되고 있는 季節
授業제로 많은 講義室에는 授業
의 熱氣가 가득하다. 그동안 미
지었던 科目을 補強하기 위해서
또는 早期卒業을 目標로 많은 學
生들이 夜間을 전담해서 授業의
熱中하고 있다.

요즘에 와서 부쩍 그 수가 늘
은 研究所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實
驗研究가 忙을 가리지 않고 進行되고
있다. 實驗의 性質에 따라서는 철야작
업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放學이
되어도 母校는 이렇게 忙을 멈추지
않고 있다.

向學의 熱氣은 두루어지면 더욱 두
터지게 나타난다. 이듬해 도서관의 창
박으로 비치는 불빛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흥분하게 한다. 그동안 大學街는
한해도 조용히 보냈던 적이 없었다.
學生들의 뜨거운 熱氣는 客觀의 事實
보다는 世界觀을, 學問에 열중하기보다
는 現實參與를 더 부딪게 認識하고 있
는 것 같은 感覺을 주는 우리의 마음을

放學과 도서관

어떻게 한 일이 이제는 먼 옛날의 일과
같기만 하다.
母校의 後輩들은 지금 炎天下를 무릎쓰
고 向學에 매진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
어 도서관의 자리를 잡는 일이 큰일이
다. 平常時 같은 새벽부터 나와서 줄
을 서야만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 자
리는 그들에게 있어 하루의 修練場이며
동시에 安眠處이다. 冠岳캠퍼스가 비록
廣闊하다고는 하나 後輩들에게는 充分
한 空間이 없다. 도서관이 그래서 그들
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空間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後輩가 되도록
安樂하게 利用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마련하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바일 것
이다.

여기서 母校 도서관의 實態를
알아볼도 또한 뜻이 있을 것 같
다.

冠岳캠퍼스에는 中央도서관이
외에 2백41석을 갖춘 法學도서관이
있고, 연건동 의대 캠퍼스
에 5백44석짜리의 의학도서관, 水
原의 農生大캠퍼스에 5백74석짜
리 도서관이 있다. 이 외에도 단
과대학과 연구소가 속담의
도서관과 도서관을 갖고 있
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도 도서관
관 시설은 부족하다. 그리고 도
서관의 도서관운영면에서도 많은
문제와 있다.

학생들의 熱氣는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서도 자기들이 공부하는 건
물에서 손쉽게 수업을 받고 연구된
책이나 논문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수준의 大學을 꿈꾸
는 우리에게 있어 학생들의 손쉽게 자
기가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얻을 수 있
는 도서관의 운영에 매우 긴박한 과제
이다.

그럼에도 企業의 德政과 政府의 특별
한 配屬로 圖書購入에 필요한 基金은
얼마전까지 마련되었다. 우리 도서관의 선
진국 대항수의 장서를 갖추게 되면
날도 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일은 후
배들에게 더 많은 讀書空間과 더 편리
한 시설을 제공하는 일일 것이다.
노와와 싸우면서 夜間에도 독서에
열중하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에게 만강
의 전진하 奮戰에 도전다.

單科大동창회 定總행사 푸짐

1백주년 기념사업 본격추진

는 감사패 金東載(보물)은
행장(동부)등 장하기금 1
천만원을 출원한 등본에 전
장(패)을 수여했다.

또한 투철한 헌법정신으
로 인권신장과 법률문화발
전에 크게 기여한 方順元

(35년卒) 동부인 제2호 자
랑스런 법대인생을 수상했
다.方동원은 『부에 넘치
는 삶이라 속스럽지만 살
아생전에 진짜 훌륭한 일
을 하라는 뜻으로 일고 받
쳤다』며 겸손해했다. (功

經大院 사무처 기구도 대폭개선

經營大學院同窓會(회장 李燦河·신하회계법인대표)는 지난 5월 31일 롯데월드호텔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梁承現(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故吳相洛(고수)에 대한 무덤과 묘비제막식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李燦河(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故吳相洛(고수)에 대한 무덤과 묘비제막식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서 同窓會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희사한 全萬榮(前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 다"고 말했다. 모교 金植鉉(전대법정)은 축사에서 "모교는 대학원 출신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문 여러분께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과 올바른 발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同窓會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희사한 全萬榮(前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 다"고 말했다. 모교 金植鉉(전대법정)은 축사에서 "모교는 대학원 출신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문 여러분께서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조언과 올바른 발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런 총회에서는 간사장 제도를 없애고 現기구를 사무국으로 승격시킨다고 써 同窓會의 위상을 높이기로 했으며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는 한편 申榮力(가)를 회장으로 임명하고 행사(장)의 발전을 위해 同窓會로 위추대(모)는 임무를 편성하도록 했다.

醫大同窓會
(회장 姜信浩)

支部長회의 준비모임
醫大이사회서 협의

다.

은 지난달 23
일 한남대입
에서 임원 이
사회를 개최했
다.

동성회와 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와 지회장
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 모

이 사 회 는 특 히
멀 리 부 산 에 서 朴 鳳 齋 翁 卜
(13 회 부 산 凡 一 病 院 長) 이
참 서 자 리 를 빛 껴 댔 다.
오 랜 시 간 는 의 한 결 과
오 는 9 월 7 일 (水) 하 야 트
호 텔 에 서 지 회 장 회 의 를
갓 기 로 확 정 하 고 그 에 따
르 는 준 비 사 회 를 점 토 했 다.

齒大22회同期會(회장 金羽聲·총무 차고원장)는 오는 10월21일 종합예술대학교를 마치고 오후7시「교육문화회관」에서 후반기 정기모임을 개최할 예정이다.

홈 커밍데이
食工科동창회

食品工學科同窓會(회)
姜炳錫)는 지난 5월 29일
농대식공관에서 정기총회
및 훌커밍데이를 개최했
다.

이날 총회에 참가한 2백여명의 인사들은 2백여명의 인사들이 이른 가운데 일일개신회를 통해 姜炳錫회장과 文東峻 부회장이 유언되고 부회장에 金正官을 뽑고, 출두에 박俊植을 뽑고, 회계에 金周庚의 선출되었다.

총회에 이어진 선후배간의 대화시간을 통해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동창회 종신회비 모금에 적극 참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延世·高麗·梨大·서울大 참여

同窓會 협의체 구성 등 현안 협의

지난 3일 오후 본會 鄭宗澤 山印부회장의 초청으로 호텔산란에서 延世 高麗梨花亭 4개대학동창회 부회장 사부총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汎大學의 이라는 의견상 특장인 이도도 이날 모임은 관계단국 및 사회각계의 비산한 관심을 모았으며 특히 이들을 열면 취재경쟁에 노력이 없었다.

초청자 鄭宗澤 부회장은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인 서울대가 시설면에서 세계 8백여개도 들지 못하며, 서울대 연간예산이 동경대의 한달에 불과한 참담한 현실속에서 정 부의 국고지원 및 재단측 에의 의존도 한계가 있기 에 해소책 마련에 온종일 리가 모체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하게 되었읍니다"라고 모임의 동기를 밝혔다.

이날 모임 4개대학동창 회 관계자들은 ▲대학동창 회의 친목과 협력 ▲대학 교육의기에 대한 공통의 인식 및 타개책 ▲국제정세사회에서 한국 대학교육의 활로 마련등과 대학재정확충을 위해 동창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기를이기로 의견을 교환한 후, 이를 활동에 조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한국대학교동창회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1차로 4개대학동창회장들의 회 동을 빠른 시일내에 갖기로 하였다.

「同門賞」시상식

工大서 4동문에 수여

母校 工科大学이 주관, 工科大学同窓會가 후원하
는 제2회「자랑스런 工大
同門賞」시상이 지난 27
일 오후 4시 모교 기초전
업공학교를 연극소 국제회
의실에서 열렸다.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거나 뛰어난 학
문적 성취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모교의 명예를
빛낸 공대동문에게 수여하
는 이 상은「국내활동동문
에 金鐘振(64년) 금속공화
과卒(동문), 李潤植(59년)
토목공화과卒(동문), 海의
활동동문인 李成圭(74년
화학교화과卒)동문에게 각
계획을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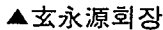
또 금년도 역전 사업을
지부 및 同好會 활성화를
잡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
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친목과 결속력 강화
를 위한 예산 편성등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총회에 이어진 선후배간의 대화시간을 통해 현재의 추진하고 있는 동창회 종신회비 모금에 적극 참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任員개선 활성화 등 협의

新任회장 玄永源동문 선임

▲기획…金得洙(대우통신)
功勞牌·사



金屬工學科同窓會(회자
金宗燦·대양실업사장)는
최근「가야선」에서 朴煥龍
동무님을 비롯한 全일원회자
들과 68名의 동무들이 참

功勞牌·사업보고

金屬工科 **예산안도 처리**
 金屬工學科同窓會(회장
 金宗燦 대양실업사장)는
 최근「가야산」에서 朴煥奭
 석한 가운데 94년도 정년
 총회를 개최했다.
 金회장의 인사말에 이

테니스대회성황

機械科 夫婦동반 모임

機械同門데니스회(회장
金天旭)은새대교수(는 최
근 모교 공대 데니스코트
에서 제4회 데니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회원중
최고 선배인 金鍾秀문
(6회, 일신통신사회장), 향
상 부부문단(이인호) 출전해
종교인 심과를 거두고 있는
朴成一(문단21회)은동제지
전부(는), 최연소 회원인 金

相浩(문단18회) 회원중
참석해 은을을 통한 친
과 유대를 강화했다.

「기계동문데니스회」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
등 기계관련학과 출신동
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
박, 가을 두 차례씩 정
대회를 개최해 동문들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
은 기계동문회(가) 011-88

9-0133)나 趙源行(동문)대우총공업 T.M. 0321-7633-9772)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春季징총열어

土木科동창회

土木工學科同窓會(회장 丁明燮)는 지난 5월 29일母校 교수회관에서 94년도 춘계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행사에는 동문 1백여명과 동무가족 90여명이 참석해 심혈을 기울였다.

丁明燮의 인사말에 이어 93-94년도 결산보고, 94-95년도 예산 심의가 있었으며 특히 鮮于仲睦(동문)의 계고大學長 취임을 축하하는 축하패를 전달했다.

징기총회가 끝난 후 崔鍾浚(동문)의 「동문」의 강지를 갖자」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었으며 任聖彬(동문)의 징기총회 부활하자는 청원문과 임인환(동문)의 장학금의 또한 결정된 다음으로 보고가 있었다.

「鶴志」출판기념회 개최

法大11동기회에
세이집발간

모사장	金錫輝 (前법부 장관)	金庸來 (前총무처장 관)	金鍾喆 (김사윤기념 원)	金大智 (駐日대사)	朴禹東 (前대법관)	양홀리에스터사장	(국제상사부회장)	(한화그룹부회장)
					裴渡 (동 원)	卞哲圭	吳在德	李圭孝

前忠宣公(忠宣公)	李大顯(동)
아임도理事	李世中(대한)
변호사협회장	李採性(동)
아임도主筆	李宅敦(국회)
의원	李洪九(부총리)
의원	李永微(부총리)
會昌(前副총리)	李徵永(국회)
(법기화재해상보험회사장)	鄭炳炆(前副교무차관)
張炳炆(前副교무차관)	崔僔(前副교무차관)
寅用(前副교무차관)	



洪一植 丑午

深(前靑瓦臺비서실장) 崔在護(前대법관) 동문등이 생들이 모여 수상질을 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崔泳美 동문 출판 話題
첫詩集 16만부나 팔려

[illegible]

崔鍾訓은 92년 1월 1日과 批評誌를 통해 登壇「교과서가 없는 시」의 고루한 정음·영문·편역을 정직하게 소개했다. 그는 찬사와 합쳐 촉망받는 新人으로 詩人이 됐다.

그녀는 『30년 뒤에 썼던 日記帳을 뒤적이다』에서 베스트셀러중합본

春季정총열어

土木科 동창회

土木科 동창회

土木工學科同窓會(회장
明植)는 지난 5월 29
일 母校 교수회관에서 94
년도 춘계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으며 이 행사에는 동문
1백여명과 동모가족 9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

97년도 예산상 7억 5천만 원이

[illegible]

만에 대형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다. 그녀는 『열혈열혈합니다』 新人이

면 2만부정도 팔리면
성공이겠다고 생각했어
요. 아직 실감도 안나고
주변의 관심을 감당하기
힘을 다"고 하면서 열렬
결에 詩人이 된것같다면
서 졸업후 10년간 실업
자로 세상생활을 한것이
작품을 쓰는데 밑거름이
된것같다고 말한다.

가톨릭 의모와는 달리
강한 의지와 의욕, 치열
한 詩精神을 표현한 詩
語들로 하여 그녀를 新
世代 詩人으로 보는 視
角이 있기도 하다.

「자랑스러운 同門」 수상자의 얼굴

—工大·法大동창회 선정 포창

工大 및 法大同窓會에서는 매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을 각각 選定, 서울대 精神의 高揚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도 法大에선 方順元동문을,工大에선 李成圭·金鍾振·李潤植동문을 선정 포창했다. 산업기술 발전에 至大한 공헌과 뛰어난 학문적 성취, 고매한 人品으로 서울대인의 驍鎔이 되는 이들 네분 受賞者의 功績과 프로필을 간략히 소개한다.(편집자)

方順元 변호사



해방한 法理論과 實용한 法 구현으로 어려웠던 시절 司法府의 권위를 지켜왔던 方同門은 法官과 法學者로서 的인 責任과 信念으로平生을 살아온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법조인이다. 方동문은 1935년 法大前身인 京城法專 출신으로 40년 高文司法試에 합격, 41년 威興地法試補로 법조생활을 시작, 30여년을 法官으로 재직하다 大法院判事로 법관생활을 마쳤다. 그사이 方동문은 國學大學, 崇實大學교수를 거쳐 母校

헌법 수호로 人權신장 이바지

법학자로서도 後進양성에 힘써

法大교수로 後學육성에 심혈을 쏟기도 했다. 특히 민사소송법과 民法學은 야에서 선구적 업적을 이룩했으며 法學을 發展케 하는 데 기여한 바 크다. 71년 대법원 판사 재임중엔 헌법정신에 투철한 획기적인 判決을 함으로써 헌법수호에 主導的인 역할을 했으며 人權伸張에 이바지하여 국가와 民衆을 위해 두드러진 봉사했다. 고매한 人品과 海闊한 지식으로 후진법률인의 指導와 扶助를 받고 있는 方동문은 법조인의 생활태도에 대해서도 垂範이 되고 있다. 그는 바쁜 법관생활중에서도 민사소송법, 민법총칙, 신민법총칙, 신물권법, 민사소송법 등 많은 著書를 출간, 學界에서도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學者로서의 자기세계 확장과 법조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을 갖추고 있어 그의 年代에서는 한 획을 그은 人物이다.



미국 애크론대에서 化學科學科長으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李동문은 石炭을 포함한 에너지資源의 活用, C-1 化學, 高分子중합물질 및 物理的인 연구, 화학반응공학, 공정해석론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 1백22년의 애크론대 역사를 통해 유일하게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우수교수로 선정될만큼

특히 李교수는 미국화학공학회에도 참여하여 지금까지 21번의 分科발표座長으로 심포지움을 선출되기도 했으며, 더욱 유명해졌는데 대학출신후 30여년간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 국제적으로 널리 명성을 얻고 있다. 李교수가 자랑스런 서울대인으로 자리를 굳힌 것은 88년 애크론대의 Robert Inghel Professor로 지명되었고 90년부터는 미국 NSAF에서 선정 한 우수연구센터의 하나인 프록세스 리서치센터소장으로 연구센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李成圭 애크론대교수

化學공학 업적으로 국제적 名聲

애크론대서 자랑하는 우수교수



실기습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漢江을 4대강 유역조사를 비롯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수자원정책의 母胎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올랐다. 59년 工大 土木工學科를 졸업, 공직생활 35년간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으로 건설부 수자원국장, 기술관리실장, 건설

實務이론 겸비한 水資源界자랑

각종 「댐」 건설한 토목계의 베테랑

년 토목공학계의 베테랑이다. 그는 공직생활중에도 연이어 유네스코에서 수자원공학을 연구했고 수자원 시공용 2개 분야의 토목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78~85년에는 海外건설업무를 담당하면서 사 무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印度 주재 건설관으로 常駐,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고문보좌역을 하면서 선진기술도입, 資材人力수출을 통한 건설업의 국제화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 건설부 기술관리실장 재직시엔 不實工事반지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立案했고 건설기술연구원장엔 나후원 건설기술분야를 2천년대까지 G7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설기술진흥 10개년계획을 수립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영전하된 水資源의 量的 확대와 質的改善을 위해 수자원조사사업과 投資 확대, 수자원정보체계화 등에 힘쓰는 경영자로서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李潤植 水資源公社長

金鍾振 浦鐵社長



基幹산업인 浦鐵산업의 發展에 參與하여 세계철도의 製鐵 산업으로 정착시킨 「鐵」의 사나이(金동문은 64년 工大 금속공학과를 나와 64년 浦鐵에入社한 이래 浦鐵과 光陽製鐵소 건설에 따른 製鐵기술의

도입과 적용, 에너지절약형 제조공법, 제품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철부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올랐다. 83년부터는 光陽製鐵소 건설을 지도하면서 제철소기 술체계 확립에 전력, 所要人力을 確保하고 있다. 전기발전 및 체계적 교육 훈련으로 操業대비를 위한 事業前段에 힘썼고 건설자재 적기공급으로 건설공기 단축, 正當조업 조기달성을 이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제철소 건설 및 운영기관 구축으로 산업발전의 모범이 되게 했다. 또한 金동문은 효율적으로 제철소관리체계를 수립, 조직능력을 발휘하여 건전한 勞使 관계를 확립시킨 결과 생산목표달성을 무난하게 해치운 당당하고 투철한 서울대인이다. 성취욕이 강하고 일에 몰두하면 기어코 해내고 마는 집념의 서울대인 金동문은 그동안 안동제철소 부소장, 83년엔 光陽製鐵소 부소장을 역임했고 지난 3월 浦鐵사장으로 부임하여 제철왕국의 제1인자의 위치에 올랐다. 그는 제철산업 분야의 베테랑인 동시에 철강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모교의 명예를 진작시키고 있다.

製鐵분야 베테랑, 존경받는 人物

浦鐵왕국 건설한 主役의 한사람

특별한 知的전부가 金錫澈의 眼

-(베)테(랑)을 (찾아)서-

건축이론에 철학과 數理를 도입시켜 새로운 경지의 건축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탁월한 건축가 金錫澈은 66년工大건축과를 졸업, 空間연구소現同窓會館 설계한 곳에 재직했을 당시 金錫澈은 "그를 가리켜 「예술적氣質이 진하지만 예술가이기보다는 예술건축가라 칭찬했고 한국철학계의 泰斗였던朴鍾鶴교수께선 「그는 철학적이고 수학적이며 理性的인 두뇌의 소유자인가 하지만 철학자보다는 建築哲學에 앞서는 사람이라고 말한 일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실재를 겸비한 사람이다.

金錫澈은 건축에서 추구하는 세계를 「詩와 數學에 두고 건축에서의 일관된 흐름을 詩로서 조화시키고 수학으로 數値를 찾는복선적도로 그치기이라 말한다. 건축계 일각에서新表現主義로 지칭받고 있는 그의 작업은 수학적 질서와 낭만적 표현에 근거를 두고 설계되고 있다. 그 좋은 실례를 그가 세계현상으로부터 당당한 「예술의 전당에서 볼 수 있다. 복잡한 도시에 문화



공간으로서의 集會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술의 전당」은 도시가로변에 오페라 하우스, 콘서트홀, 예술관, 자료관, 서예관이 각 특성을 나타내면서 열림과 닫힘의 유기적 연결을 기능적으로 조화시키고

새로운 建築美學 추구에 전념 「예술의 전당」公募서 능력 인정받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집념인

있다. 각 건물들의 기하학적 모형과 재료의 모듬에서 풍기는 합리적인 廣場을 중심으로 규모와 형태표현에서 부유한 듯한 建築적對比를 보여주고 있다. 그가 국내외적으로 건립한 작품이론은 산수이다. 비아 자하와 住居단지 국제전, 「한」 建築을 두 손끝

미언설한 한국건축수많은 話題의 건물을 탄생시켰다. 이로하여 金錫澈은 한 국건축가협회사, 서울시건축사, 한국건축사협회대 상, 엔트론 디자인어워드 대 상,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전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부유한 집념과 마력이 있다.

金錫澈은 오늘이 있기까지를 「隨性을 거부하고 상투성을 배척하면서 내세 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투구 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그의 작품에서는 自由曲面과 원초적 動靜을 등 장시켜 原始的 역사의 空間的交流를 渾연체화하여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風光과 빛을 만끽할수 있는 知的의욕이 넘쳐나도록 연출하고 있다. 지금 도 그는 「서구건축가들의 포스트모더니즘과 디콘스트럭션의 자기도취적 환상을 경계하고 있으며 利己적이고 민중의 건축심리를 거부하는 개인주의를 배격한다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試圖의餘念이 없다」고 말하면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현재 (株)綜合建築사무소 「이카반」을 이끌고 있다.

느티나무의 廣場

崔青林

(本報논설위원·朝鮮日報편집국장대리)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改革의 참뜻과 본질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마구잡이식의 구조조정 개혁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낭패와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農安法과동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다. 농수산물 중매인의 노매기능을 배제시켜 농

정부의 改革정책이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 같다. 改革의 의지와 원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은 서둘러 짚아 없어 갖가지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빚어내고 있다. 改革이란 본래 국가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富強한

하면, 정부의 체질이 땅에 떨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다. 지난 농안법제정과 동은 중매인의 「機能」을 소홀하게 본 나머지, 유통단계의 「작용」을 없애려 한데서 유발된 가짜 改革, 말하자면 矯角殺牛의 愚를 범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보다 앞서 선진화된 일본에서도 중매인의 도매업집단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改革立法추진자들은 꿰뚫어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단지 改革했다는 한 건주의 心算, 改革大勢에 동조했다는 선남성에 빠져 국민경제의 순환을 逆流시키는 무모한 愚를 범한 셈이다.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客主가 있었고 현대도 변형된 형태의 또다른 中매인(客主)이 그 나라의

수산물들의 유통마진을 줄이려는 改革立法의 취지는 열렬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농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중매인의 「해로운機能」을 꿰뚫어 보지 못함으로 써 결국 엄청난 파동을 불러 일으키고 말았다. 농안법제정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이 일시 마비되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가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손해를 끼친 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教育改革 報告도 「다지고 보면 서문 改革, 가짜 改革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시행 1년도 안된 大學본고사제도를 유예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뒤집으려는 發想 자체가 서툴기 짝이

없고, 이처럼 없다고 본다. 몇몇 學者들이 모여 桌上에 論을 제다로 심청해 낸 것이 아니라, 위원의 구성 자체가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經濟論理에 따라 냉철하게 농업생산을 높이는 일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

있는 農發委의 구성 자체도 농 업구조개혁이라는 역사적 使命을 제대로 심청해 낸 것이 아니다. 위원의 구성 자체가 농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經濟論理에 따라 냉철하게 농업생산을 높이는 일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

金錫三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자세는 흠을 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改革을 추진하고 보좌하는 참모그림과 관료, 주 변제력이 아직까지 개혁의 참 뜻과 개혁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實効있는 개혁을 추진할 안목과 점심을 갖춘 인사들을 대량형 주변에 대 거 등용해서 참다운 改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며칠전 첫번째 발표한 농업 구조개선계획을 보더라도 善心用 意는 배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농업의 自生力 향상은 人氣주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 살을 짜는 아들이 뒤따라야 하는 데도 말이다.

金錫三대통령의 개혁의지와 자세는 흠을 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改革을 추진하고 보좌하는 참모그림과 관료, 주 변제력이 아직까지 개혁의 참 뜻과 개혁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는 것 같다. 實効있는 개혁을 추진할 안목과 점심을 갖춘 인사들을 대량형 주변에 대 거 등용해서 참다운 改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矯角殺牛의 愚 다시 범하지 말아야 참뜻·本質 터득 못한 개혁정책 止揚돼야 金 안목 경험 갖춘 人士 등용 바람직

서울대를 빛낸 사람들

母校에서 學業을 研修, 각 분야에 國家발전과 서울대를 빛낸 同門들을 소개하고자 이欄이 마련됐다. 登場하는 同門이 많을수록 우리의 未來는 밝아질 것이다. 專門분야에서 名聲을 떨치고 있는 동문을 천거하여 주시길 바란다. <편집자>

세계적 폐암 專門醫 崔瓊燦동문

제일의 醫科大學인 하버드 醫大교수로 있으면서 세계 屈指의 病院인 메사추세츠 綜合病院(MGH)에서 癌退 治연구에 専任을 하고 있다. 1963년 母校 醫大



世界的인 肺癌專門醫로서 노벨醫學賞에 가장 近接하고 있는 在美 醫學者, 우리에게 보다 外國에서 더 알려진 崔瓊燦동문이다. 그는 지금 美國에서 母校를 빛내며 韓國의 優秀性을 크게 浮現시키고 있는 人물이다. 美國

崔瓊燦의 專攻분야는 肺 癌, 그는 30년째 癌 肺 癌의 研究에 몰두하고 있다. 癌 肺의 發生을 막고 患者의 腹 部를 切開하는 手術인 攻 略이 아닌 最尖端의 放射線 治療 價値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2년 美國의 有數 月刊誌 「국호」에 10월호 「美國 肺癌放 射線 治療分野의 8大人物」

崔瓊燦의 專攻분야는 肺 癌, 그는 30년째 癌 肺 癌의 研究에 몰두하고 있다. 癌 肺의 發生을 막고 患者의 腹 部를 切開하는 手術인 攻 略이 아닌 最尖端의 放射線 治療 價値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2년 美國의 有數 月刊誌 「국호」에 10월호 「美國 肺癌放 射線 治療分野의 8大人物」

崔瓊燦의 專攻분야는 肺 癌, 그는 30년째 癌 肺 癌의 研究에 몰두하고 있다. 癌 肺의 發生을 막고 患者의 腹 部를 切開하는 手術인 攻 略이 아닌 最尖端의 放射線 治療 價値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2년 美國의 有數 月刊誌 「국호」에 10월호 「美國 肺癌放 射線 治療分野의 8大人物」

노벨賞에 근접한 在美 醫學者 放射線이용 癌세포정복 進一步

崔瓊燦의 專攻분야는 肺 癌, 그는 30년째 癌 肺 癌의 研究에 몰두하고 있다. 癌 肺의 發生을 막고 患者의 腹 部를 切開하는 手術인 攻 略이 아닌 最尖端의 放射線 治療 價値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1962년 美國의 有數 月刊誌 「국호」에 10월호 「美國 肺癌放 射線 治療分野의 8大人物」

엘리트의 正統을 만들자

— 金鎮炫(54년 文理大卒·韓國經濟新聞 會長)



서울대同門에게 告함!

그는 작별, 어떤 조직 어떤 기구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 다 보면 공통된 문제의 불꽃 하게 된다. 그 조직과 기구의 中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과

共同體 관리위한 小數精銳 育成돼야

서울대 未來사회위해 희생정신 필요

地緣, 學緣을 權力利己主義에 적용 활용하는 作態를 變히 다. 國家, 社會共同體 經營의 理念, 비전, 政策을 중심으로 古典의 正統의 權力가 실종되 거나 부어되거나 정당화된 中心은 아니다. 또 그런 中心이 近代化이후 이 땅에 있어 본 地緣, 學緣을 權力利己主義에 적용 활용하는 作態를 變히 다. 國家, 社會共同體 經營의 理念, 비전, 政策을 중심으로 古典의 正統의 權力가 실종되 거나 부어되거나 정당화된 中心은 아니다. 또 그런 中心이 近代化이후 이 땅에 있어 본

했다고 볼 수 있다.

車培根(사회대) 吳金成
(이문대) 宋文燮(자연대)
鄭 進(농대) 禹士煥(사
대) 林繁藏(사대) 金義洙
(사대) 등문인이 母校敎授로
재직중이다.

政·官界에는 民自黨의원
인 河舜鳳(농문), 교육평가
원 韓烈평(가부장)에 俞千根
등문, 金德煥(농문)에 교육
부 고위직인 韓克宗(농)으로 있고
財界에는 朴翼奎(동신제
財界)에 朴翼奎(동신제)
의 車相悅(인문)인 沈
奉錫(신농교) 朴英錫(주
선기) 李喜鎔(진인특수
화학) 등문인이 대외이사로
있다.

그 외에도 卞桂仙(농문)이
질스카웃 총재로, 李載賢
등문인이 수단 부활 대표와
극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며 李眞子(농문)의 수녀의
길을 걷고 있는 등 각자가
속한 세계에서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다.



▲宋仁相 (35) 商
大卒・東洋
나이론會
長・本會理
事

달 21일 80평생을 담은 회고
록「부흥과 성장을 이룬 회고
다」

▲李東燾(41) 醫大卒・產婦
人科醫院院長・최근 日本東
京에서 개최된 京城帝國大學
의대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
식에 참석

▲金洛升(49) 師大卒・前清
雲中學校長・本會理事・최근
은평구 역촌2동 54의 25로
移住. 전화 359-182



▲韓基彦 (49) 師
大卒・母校
名譽教授
11월 모교
로 3일 열린
예총총회에서
推戴됐다

교수회관에서 후학과 재자를
로부터 古稀기념編著「교육
국가의 건설・교육의 세기와
기초주의」를 발간했다



▲申勲澈 (51) 工
大卒・前第
一毛織相
談役・本會
理事・최근

근 三星그룹을 퇴직하고 三
星그룹 退職員 모임인 星
友會 초대회장에 就任



▲李光魯 (51) 工
大卒・母校
名譽教授・
大學院同
窓會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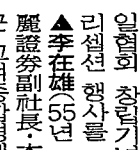
지난달 3일 열린
회에서 미술분야
예술원 총
회에 推戴됐다



▲具平會 (51) 文
理大卒・實
協會長・本
會副會長

1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韓・美財界會議 제7차 총회
를 개최했다

▲崔弘基(52) 文理大卒・母
校名譽教授・최근 日本東
京에서 개최된 京城帝國大學
의대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
식에 참석



Y M C A 호텔에서 結成된 통
일협회 창립기념 토론회 및
리선선 행사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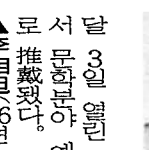
▲李在雄(55) 法大卒・前高
麗證券副社長・本會理事・최근
고려중앙경제연구소 사장에
就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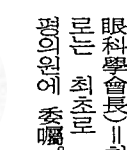
▲張明洙 (56) 工
大卒・全北
大學校教
授・本會理
事・최근



▲李御寧 (56) 文
理大卒・前
文化部長
官・本會理
事・최근



▲李相旭(56) 醫大卒・亞太
眼科學會會長・최근 한국인
론는 최초로 세계안과학회
의원에 當選



▲韓鏞徹 (56) 醫
大卒・三星
醫院院長・
本會理事・
최근 사
단법인 한국근로자연맹의 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부회장에
選任



▲申禹植 (57) 文
理大卒・前
서울新聞
社長・本會
理事・최근

근 한국연세자연원 이사장에
推戴됐다



▲李龍兌 (57) 文
理大卒・韓
國情報産
業聯合會
長・本會理
事・최근

사(지)지 18일 서울인터
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이
시아대동주 정부차리 신임기
구 임명회에서 신임회장에
選任



▲尹益洙(57) 法大卒・關東
大學教授・지지 3일 서울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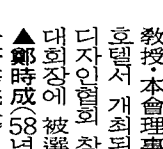
▲崔益洙(57) 法大卒・關東
大學教授・지지 3일 서울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崔益洙(57) 法大卒・關東
大學教授・지지 3일 서울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프레이저트호텔 舍베르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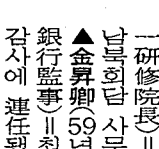


▲鄭春澤 (58) 文
理大卒・前
全國銀行
聯合會會
長・本會理
事・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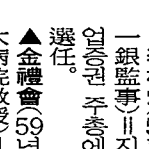
고무에 就任
▲趙榮濟(58) 美大卒・母校
教授・本會理事・최근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시장정보
디자인협회 창립총회에서 초
대회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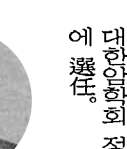
▲鄭時成(58) 法大卒・前統
一研修院長・지지 2일
남북회담 사무국장에 就任



▲金昇卿(59) 商大卒・企業
銀行監事・최근 기업은행
감사에 連任됐다



▲李柱燦(59) 商大卒・前第
一銀監事・지지 16일 상
업진흥주총에서 신임사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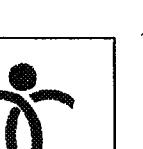


▲金禮會(59) 醫大卒・仁濟
大病院教授・최근 개원
대한인학회 정초에서 이사장
에 選任



▲秦教勲 (60) 文
理大卒・母
校教授・최근「哲
學의 人間
學」研究로 제6회「曙」哲
學賞(저술부문)을 받았다

▲李全雨(60) 法大卒・한남
投信委員・지지 16일 한
남투자신탁 차기사장에 選
任



▲崔敏浩(60) 農大卒・母校
教授・최근 한국농촌지도학
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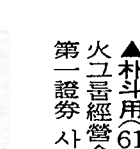
▲洪寅基 (60) 法
大卒・前
第一證券
사장에 選任됐다



▲尹東潤 (61) 法
大卒・遞信
部長官・本
會理事・최근

일 한국일보사 송영철연구소
에서 열린 高試동지회 정기총회
에서 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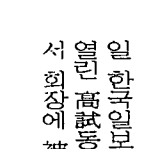
일 한국일보사 송영철연구소
에서 열린 高試동지회 정기총회
에서 회장에 被選



▲朴鍾世(66) 文理大卒・K
I S T도핑트렌트센터장・최근
지지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학기총회에서 석좌연구기
금을 기증함에 따라 K I S
T 세번째 석좌연구원이 됐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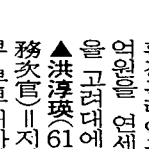
▲鄭大哲 (67) 法
大卒・國會
議員・本會
副會長・최근



▲崔錫珍(67) 師大卒・韓國
教育開發院部長・최근「세
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
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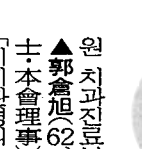
▲朴忍珠(68) 醫大卒・母校
教授・지지 16일 국립중앙
박물관에서 열린「제2회
藝術賞演說大賞」을 수상



▲鄭泰鶴(70) 工大卒・母校
教授・최근「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전에 기여
한 공로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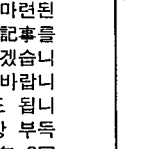


▲朴武鎭(70) 經營大卒・韓
國開發研究所長・지지 17
일 신라호텔 다이내믹스
리조트에서 창립20주년 기념리
셉션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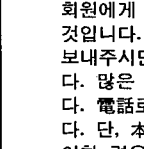
▲鄭福珠(70) 音大卒・梨花
女大教授・지지 15일 개
최된 마드리드실내악단 제19회
정기연주회에 當選

▲金煥源(70) 經大院卒・宇
英産業會長・本會理事・최근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열린
韓・瑞協會 정기총회에서 신
임회장에 選任



▲李元國(70) 教大院卒・公
州師大教授・최근 공주시대
교육대학원에 就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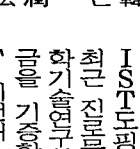
▲李珪範(71) 文理大卒・母
校教授・최근 한국아데나위
학술교류회 정기총회에서 부
회장에 選任



▲鄭光養(71) 文理大卒・中
央大學教授・지지 14일 모
교 신년회에서 열린 한국재
무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에
選任

▲李昌洙(71) 音大卒・코리
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재
무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에
選任

▲李昌洙(71) 音大卒・코리
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재
무학회 총회에서 차기회장에
選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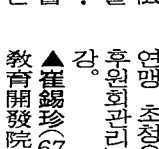
▲金光億(73) 文理大卒・母
校教授・최근 嶺南대 인문관
감에서 열린 제26차 한국
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부회장에 被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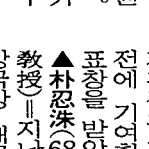
▲俞翰樹(74) 工大卒・前投
資金融研究所長・최근 포철
산하법인인「포스」경영연구
소(연구소)장에 就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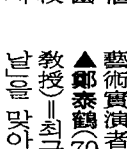
▲南承祐(74) 法大卒・폴루
인食品代表理事・최근 한국
경제신문이 제정한 제3회
茶山經營賞을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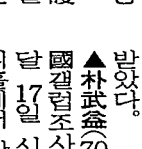
▲林憲政(76) 音大卒・母校
教授・지지 1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마드리드실내악
단 제19회 정기연주회에서
객원지휘자로 當選



▲金泳律(80) 音大卒・檀國
大學教授・지지 22일 예술
의전당에서 개최된 아폴로
스무프동주단 제5회 정
기연주회에 當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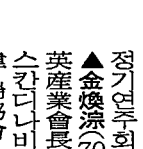


▲崔善鎔(80) 音大卒・서울
아트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지지 7일 예술의전당
음악당에서 제20회 정기연주
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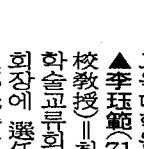
▲李活(83) 音大卒・서울
내셔널실포니오케스트라악장
・바이올리니스트・지지 16
일 호안아트홀에서 全昭暎
(84) 音大卒・동주단 함께
노모스트리우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尹振(84) 師大卒・延世
大學教授・최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노년
학회 연차총회에서 신임회장
에 被選



▲金俊(86) 音大卒・피아
니스트・최근 예술의전당
에서 음대동창회 후원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졌다

▲李惠恩(87) 音大卒・피아
니스트・지지 15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열린「김소희바
이올린 귀국독주회」에 當選



바르셀로나
지지 6월호 6면의 계
재된 건축학과동창회 기사중
現회장인 鄭日榮(55) 音大卒
・母校教授이며「건축」은
논의된 바 없었습니다

8면에 게재됐던 韓雲史동
문의 入學年度는 47년(1970)으로
바뀌었습니다

8면에 게재됐던 韓雲史동
문의 入學年度는 47년(197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全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
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
다. 電話로 통보해 주셔도 됩니
다. 단, 本報의 편집방향상 부
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年 3회
이상 게재치 못하는 점 양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揭示板

* 임정비문·노현회영	86년
家政大卒	7월2일 12시30분。
* 김영호	91년
유소연	89년
美大卒	7월2일 14시。
* 김태식	91년
工大卒	신은주양
7월2일	15시30분。
* 정진길	92년
自然大卒	
이주익	97월9일 14시。

[illegible]

[illegible]

- 서울大學校總同窓會長 金在淳
서울大學校總長 金鍾云

하나라도 안 나오는 것이
있었다」라고 대답했다니 분
명음악에 있어서만은 천
부적인 자질이 있었던 것
같다. 썬고교보를 나온 후
1943년 母校 前身인
조선시대 치대의 입학했지
만 음악적 열정을 못 이겨
「학관」이란 그룹을 결성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
했다. 50년대부터 東京에
는 시기였던 60년대는 패
티 김과의 만남에서 비롯
됐다. 그년에 대한 프로포
즈로 알려진 첫 디스크
「4월이 가면」이 그룹의
내 최고의 작곡가로 만들
었다. 특히 「서울의 찬가」
는 서울에 대한 그의 개별
한 사람이 잘 나타난 명곡
으로 평가되며 「빛과 그림
의 수줍음 알만하네」가
고 상임주요직인 작곡가
에 있지만 애가는 단 한
곡도 작곡하지 않았고 천
박한 상임주요직을 겸했
다고 말했다. 화려한 기
교와 풍부한 음악성으로
국제가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해 우리나라 대중가요
의 수장을 알만하네 기
행이며 일본음악의 뿌리가
에 오지 못하던 그가 이제
는病魔와 싸우고 있다.
지금처럼 故國과 친구가
필요한 때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너무 크고 단 존재
로만 그를 바라볼 것이 아
니다. 어렸을 때 함께하
는 同門으로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악기로, 外國에서 다대접 받는다. 재즈 연주자로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自由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

吉屋潤은 27년 평양 영변출생으로 金在淳本會會長과 평양소학교 同窓이다. 金희장의 회고에 따르면 「하모니카를 코를 질질 대고 연주하는 1인자로 추앙 받으며 지금도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의 작품은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그 깊이가 깊고 애착되고 있다. 그의 노랫가 이처럼 사람들은 이윽은 우선 쉽다는 것이 미묘한 사람과 이별의 감정을 그처럼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대중가요는 바로 대중의 가슴속에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여러운 생활속에서도 뱃노래를 수집해 「문예춘추」에 寄稿, 음악에 못지 않은 글솜씨도 볼 수 있었다.

셀을 만드는 행위를 위주로 하는 수화적인 문제를 푸는 데 활용되던 응용프로그램으로 제어 및 시스템 또는 신호처리와 해석과 설계를 돕는데 쓰인다.

특히 매트랩, 매트릭스 X들과 같은 기존의 패키지가 갖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이미 이러한 패키지에 익숙해 있던 사용자들도 거부감없이 셀을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장 취임
忠鉉 교수
지난 6월 3
일자로母校는
공로청에 崔
明 교수, 법대
학장에 白忠鉉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관계법개정 거쳐 실시 계획

령 개정을 거쳐 빠른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모교가 도입키로 한 계약교수제는 새로운 교수요원을 3년간 한시적 계약채용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동양의 연구장을 평가, 우수한 전수를 받을 경우에만 정규교수로 채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서 전체 교수층 전변을 보편형선제로 이루어진 승진심사를 학과장직제 도입의 연구업적 및 봉사활동 등 실적도 등을 포괄하는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강화를 방침이다.

교무처장·법대학장취임
崔明·白忠鉉 교수

일자로(母校)는 62년 법대교수로서, 법대교장에 白忠鉉교수를 각각임명했다.

崔교무처장은 62년 법대를 졸업, 美일리노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후 72년 신문대학원 조교수로 76년 정치학과에 몸담은 이래 학과장, 사회학과장 등을 역임한바 있다.



▲지난달 준공된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學位論文 높은 分子생물과

국제학술지에 논문실려야 認定

自然科學大學 分子生物學科(화학)장 盧賢樓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유수 학술지에 논문들을 게재한 화생지에 한해서만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분자생물학과 교수들은 최근 교수회의를 열어 「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및 학과신사 제도를 위한 내규」를 제정, 국제화술논문지에 논문들을 게재하되 첫 번째 저자(First Author)로 발표된 논문 별해본이나 게재증명서를 분자생물학과 교수회의에 제출해야 박사학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수회의는 이 내규를 92년 박사과정 입학생자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盧賢樓장은 「당분간은 박사학위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학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법대학장**이 61년
법대 졸업, 68년 법학연구
소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학장부처장, 법대교무처장
학장보, 교무처장을 역임
해 왔다.



▲ 白법대학장



▲崔교무처장

뉴미디어 통신연구소 준공
금성사 42억 7천만원 지원

뉴미디아通信共同研究所
(소장) 李忠雄 준공식이
지난 6월 1일 金鍾玉총
장, 景商鉉技術부차관, 李
憲祖副總사부회장 등 내외
귀인이 참석한 가운데 준
공현장에서 개최됐다.
동연구소는 금성사가 총
공사비 42억 7천만원을 지
원, 한국개발의 시공으로
92년 11월부터 1년 7개월
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대지 1천 1백 90여평,
연면적 1천 5백 90평에 지
상 4층, 지하 1층의 라멘
조철골구조로 건축된 硯
연구소는 원장과의 스투디
오, 산화연구실 3개실,
실험실 12개실, 기술자료
실, 기술지원실 등 각종 철
단시설 및 기자재를 갖추
고 있다.
91년 6월 뉴미디아 통
신분야의 신기술 연구와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을 위
해 설립돼 무선통신, 정보
통신, 신호처리, 뉴미디아 본
사의 국가프로젝트를 수행

해 온 同연속은 앞으로
전국대학 및 산업체의 뉴
미디어관련 연구인력들이

국민은행 석좌교수기금
5억약정 1차 1억출연

國民銀行(은행장 李圭澄 59년 文理大卒)은 국민은 행 석좌교수기금으로 98년 5월까지 5억원을 출연키 로 약속하고, 이에따라 1 차분으로 1억원을 발전기 금에 출연했다.	모교의 교수요원 충원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국민은 행의 석좌교수기금 출연은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대한 것을 일응하는 모 교 사제로 평가받고 있 다.
--	--

평·토끼 뛰노는 冠岳캠퍼스”
工大써클서 1백 80마리放生

母校 冠岳 캠퍼스에서
생이 날고 토끼 노루 등
野生동물들이 뛰노는 광
경을 본다면 얼마나 흐
릿할까? 삼만 한 콘크리
트 숲에 에워싸여 있는
冠岳 캠퍼스는 外觀上으
로 볼때 너무 삼라만상
게 세사이다. 이런 분위
기를 바뀔 것을 계기가
가 생과 여지들에게 의해
어리게 됐다.

母校 工大女職員모임
인 多友會회장 崔瑋賢
27세)와工大학생들이
인「오토」(오리 토끼
노루의 머리카락을 따서
만들어진)를 지난달
24일 교내 노천극장 옆
잔디밭에서 교수 직원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토끼 60마리
평 1백20마리를 풀어놓
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의 행사는「多友
會」와「오토」가 캠퍼

스카 관악산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야생화가 절집 읍어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지난날 17일 '서울대 소신'지에 '캘퍼스에 아생화들을 풀이놓자'는 칼럼인을 전개하면서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부터 4백여만원의 출연을 받아 실시한 것이다.

이 모금에선 오는 10월에도 켄, 토끼, 청동 오리들을 구입 2차 방생행사를 가질 계획이

21萬同門이 즐겨읽는 同窓會報에 廣告로 企業을 PR합시다

서울大學校同窓會報 편집실

저희 <서울大學校同窓會報>는 21萬同門의 親睦과 結束을 다지고 母校와의 紐帶를 더욱 긴밀히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매월 定期的으로 7萬餘部씩 발행하고 있는 會紙입니다. 서울大人의 代辯紙로 自負하고 있는 <同窓會報>는 점점 그 영향력이 높아져갈 뿐더러 廣告에 대한 效果面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總同窓會 발전을 위해 <同窓會報>에 廣告로 도움을 주신
관계企業體와 社主 그리고 同門께 심심한 謝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企業 PR로 저희 〈同窓會報〉를 活用하시려는 同門께서는 직접 연락을 주시면 찾아뵙고 廣告에 대한 高見을 들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廣告問議電話 702-2233(代)

